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5. 09. ~ 05. 15.

# 전남농업정보

84

VOL

## 기상전망

## 농산물 동향 (관측정보)

· 엽근 · 양념채소 출하 및 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서 가공한 한우고기, 홍콩서 첫 수출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비파열매와 울금 발효를 위한 원료의 전처리방법
- 여주 과잉출하기 회피 남부지역 1년 2기작 작형개발

## 정책동향

- 전남 귀농어·귀촌 유치 통합 상담창구 뒀다
-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해외농업정보

· 중국 마늘 · 양파 생산 동향 및 전망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많겠음

###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8

-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배 검은별무늬병
- ▶ 예 보 : 벼 못자리 병해충, 과수 해충

###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9

- ▶ 엽근채소 출하 및 가격전망
- ▶ 양념채소 출하 및 가격전망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3

- ▶ 나주시, '나주 왕곡참외' 특화 생산단지 육성한다
- ▶ 광양시, 농업진흥지역 240ha 변경·해제 추진
- ▶ 곡성군, '스마트팜' 경쟁력 강화
- ▶ 강진군, 벼 무논점과 2배 확대로 힘찬 출발
- ▶ 신안군, 「꾸지뽕」 정지전정 현장교육 실시 ....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0

- ▶ 보성군, 농·특산물 미국수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전남서 가공한 한우고기, 홍콩서 첫 수출
- ▶ 홍콩 계란수출 정상궤도에...

##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3

- ▶ 농산물꾸러미 활성화를 위한 요인별 중요도 및 상품개발 방향
- ▶ 비파열매와 울금 발효를 위한 원료의 전처리방법
- ▶ 남부지역 조 기계파종에 적합한 품종 및 파종시기
- ▶ 여주 과잉출하기 회피 남부지역 1년 2기작 작형개발
- ▶ 전남 쌀 품질 향상 위해 최고품질벼 품종 재배해야
- ▶ 2016년산 벼·맥류·두류 등 우량종자 생산에 박차
- ▶ 참다래 풍년 농사는 인공수분에서부터
- ▶ 고품질 홍차생산을 위한 농가 기술지원 개시
- ▶ 잡곡 농사의 시작! 우량종자 고르기

## ❁ 정책 동향 ..... 34

- ▶ 전남 귀농어·귀촌 유치 통합 상담창구 뒀다
- ▶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 전남도, 정부양곡 안정적 재고관리 총력

## ❁ 해외 농업정보 ..... 39

### ▶ 중국 마늘·양파 생산 동향 및 전망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5. 0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금주 가격 하락으로 인해 11월 중순 이후 가장 큰 주간 손실을 보았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목요일 가격하락 이후 시장에 일부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였음.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아르헨티나에서 수확되고 있는 대두의 품질 우려로 인해 이익을 얻어 상승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2

### ▶ 농·수·축 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 ▶ 가자! 행복스케치 농촌교육농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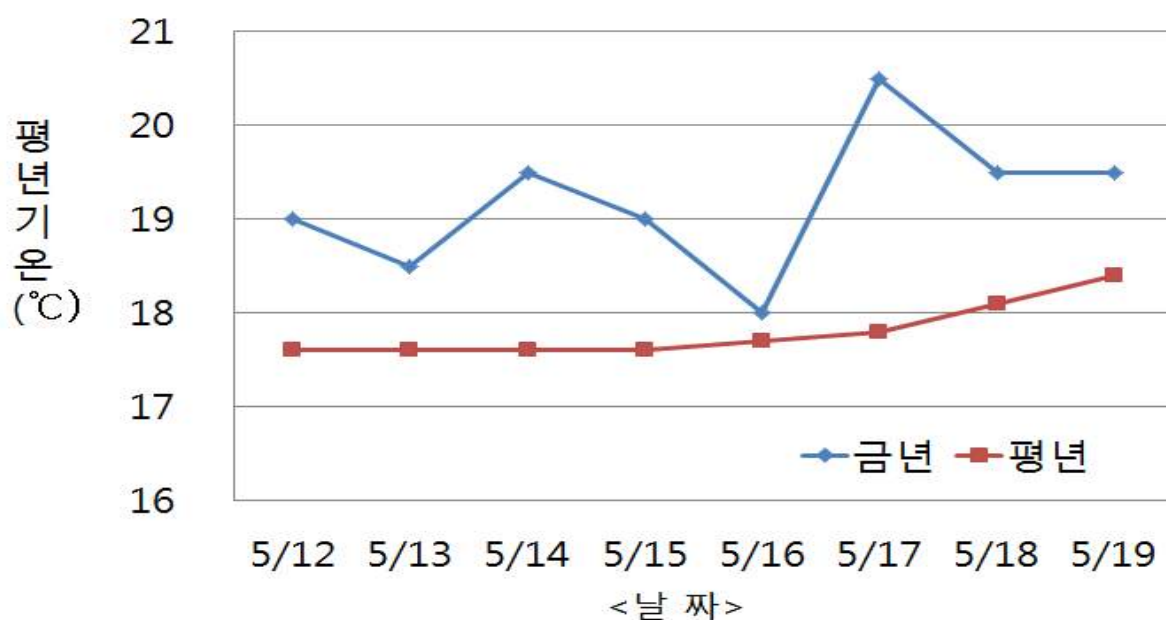
### ▶ 제각각이던 농기계 안전표지·조작표시 6월부터 하나로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9.2	17.8	1.4	24.6	23.6	1.0	13.8	12.7	1.1	3.6
5. 12.(목)	19.0	17.6	1.4	25.0	23.4	1.6	13.0	12.4	0.6	4.1
5. 13.(금)	18.5	17.6	0.9	24.0	23.4	0.6	13.0	12.5	0.5	3.9
5. 14.(토)	19.5	17.6	1.9	25.0	23.4	1.6	14.0	12.6	1.4	3.7
5. 15.(일)	19.0	17.6	1.4	24.0	23.4	0.6	14.0	12.5	1.5	3.8
5. 16.(월)	18.0	17.7	0.3	21.0	23.5	-2.5	15.0	12.6	2.4	3.1
5. 17.(화)	20.5	17.8	2.7	26.0	23.6	2.4	15.0	12.8	2.2	3.6
5. 18.(수)	19.5	18.1	1.4	26.0	24.0	2.0	13.0	13.0	0.0	3.4
5. 19.(목)	19.5	18.4	1.1	26.0	24.4	1.6	13.0	13.2	-0.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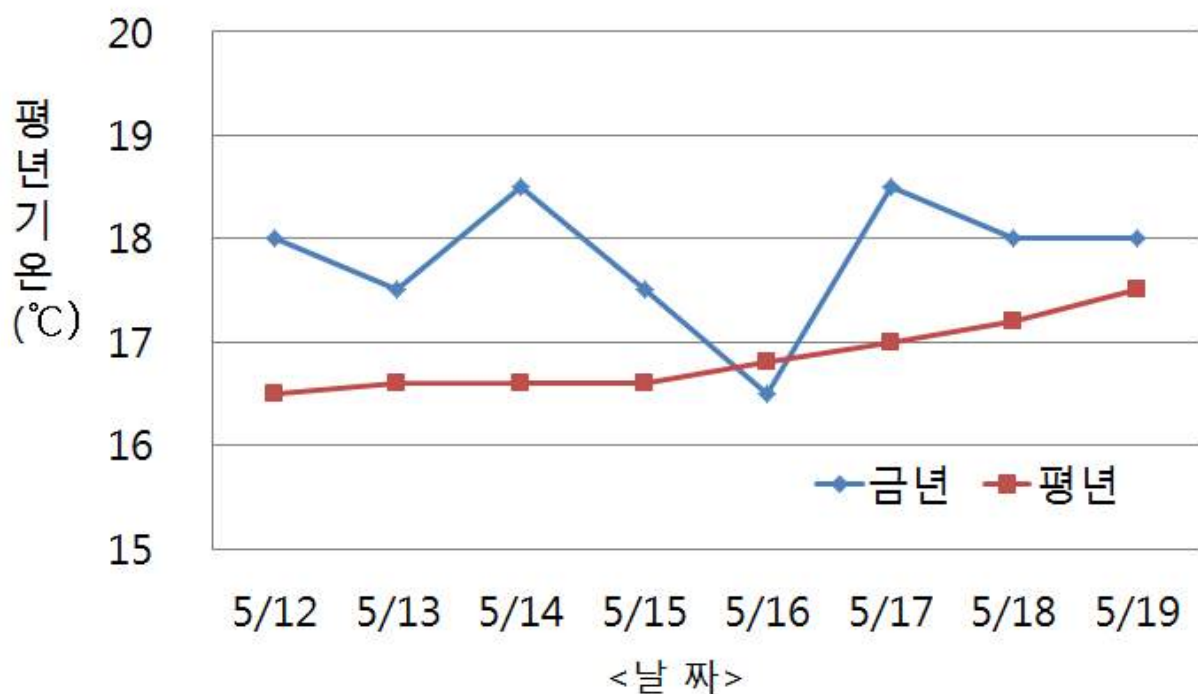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7.8	16.9	1.0	22.3	21.8	0.4	13.4	13.0	0.4	3.2
5. 12.(목)	18.0	16.5	1.5	23.0	21.4	1.6	13.0	12.6	0.4	3.8
5. 13.(금)	17.5	16.6	0.9	22.0	21.5	0.5	13.0	12.7	0.3	3.1
5. 14.(토)	18.5	16.6	1.9	23.0	21.5	1.5	14.0	12.8	1.2	2.9
5. 15.(일)	17.5	16.6	0.9	22.0	21.6	0.4	13.0	12.8	0.2	3.2
5. 16.(월)	16.5	16.8	-0.3	19.0	21.8	-2.8	14.0	12.9	1.1	2.6
5. 17.(화)	18.5	17.0	1.5	23.0	21.9	1.1	14.0	13.2	0.8	3.3
5. 18.(수)	18.0	17.2	0.8	23.0	22.2	0.8	13.0	13.4	-0.4	3.2
5. 19.(목)	18.0	17.5	0.5	23.0	22.6	0.4	13.0	13.6	-0.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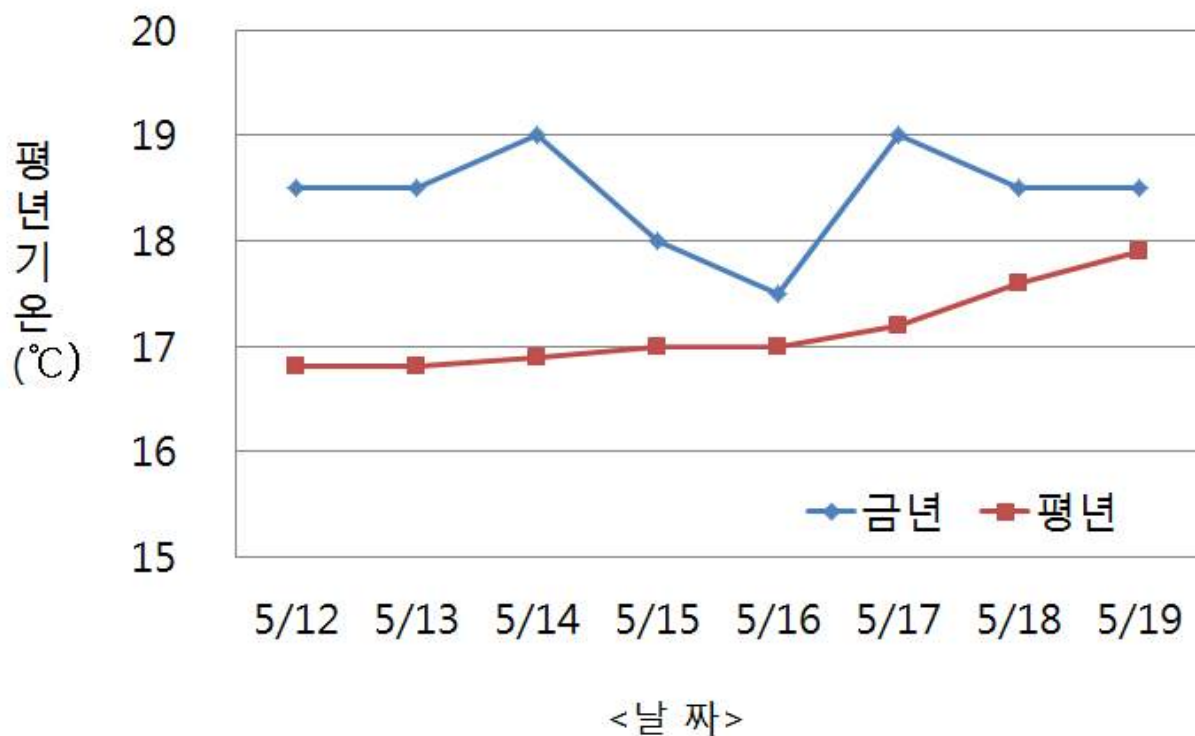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8.4	17.2	1.3	21.5	20.9	0.6	15.4	14.1	1.3	4.8
5. 12.(목)	18.5	16.8	1.7	22.0	20.5	1.5	15.0	13.7	1.3	4.9
5. 13.(금)	18.5	16.8	1.7	22.0	20.5	1.5	15.0	13.8	1.2	4.8
5. 14.(토)	19.0	16.9	2.1	22.0	20.7	1.3	16.0	13.9	2.1	4.5
5. 15.(일)	18.0	17.0	1.0	21.0	20.8	0.2	15.0	13.9	1.1	4.1
5. 16.(월)	17.5	17.0	0.5	19.0	20.8	-1.8	16.0	13.9	2.1	4.3
5. 17.(화)	19.0	17.2	1.8	22.0	21.0	1.0	16.0	14.1	1.9	4.9
5. 18.(수)	18.5	17.6	0.9	22.0	21.4	0.6	15.0	14.4	0.6	5.2
5. 19.(목)	18.5	17.9	0.6	22.0	21.7	0.3	15.0	14.7	0.3	5.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5월 예보)

농촌진흥청은 벼 종자전염성 병해충, 마늘·양파와 시설재배 작물 및 과수 등의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발표하오니 농작물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갈색날개매미충 : 주의보

- 알이 깨어 나오는 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충남·전북 일부지역에 월동알 밀도가 높으므로 유충이 깨어 나오면 5월 중·하순에 적용 약제로 방제

### □ 벼 못자리 병해충 : 예보

- 육묘 시 방충망 등으로 애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이앙 당일 상자에 입제 농약을 뿌려 벼물바구미, 벼잎벌레, 잎도열병 등을 동시에 방제한 후 모내기

### □ 배 검은별무늬병 : 주의보

- 배꽃 개화기가 빨랐고 개화기에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아 감염위험이 높아졌으므로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의 감염예측정보를 활용하여 병반이 보이기 전에 예방위주로 보호 살균제 방제

### □ 과수 해충 : 예보

- 복숭아순나방, 꼬마배나무이, 진딧물류 등은 꽃이 진 후 적용방제로 방제하고, 배가루각지벌레,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은 약충이 깨어 나오면 적용약제로 방제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3.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엽근채소 출하 및 가격전망

##### □ 5월 가격전망

- 봄배추·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중·하순부터 가격 하락 전망
  - 배추는 봄배추 출하가 많아지는 중순 이후 하락하여 전월보다 낮은 8,500원/10kg 내외 전망
  - 무는 봄무가 출하되는 하순 이후 하락하여 전월보다 낮은 16,000원/18kg 내외 전망
  - 감자(수미)는 노지봄감자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33,000원/20kg 내외 전망
  - 당근은 겨울저장당근과 시설봄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29,000원/20kg 내외 전망
  - 양배추는 겨울저장양배추와 시설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12,000원/8kg 내외 전망

##### □ 봄작형

- 봄배추·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많을 전망
  - 봄배추·무·감자 생산량은 정식기 높은 시세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12 ~ 30% 증가
  - 봄당근 생산량은 작년보다 5% 감소하나, 봄양배추는 3% 증가할 전망
  - 그러나 봄작형 생산량은 향후 봄철 기상에 따라 변동 가능

## 양념채소 출하 및 가격전망

### □ 5월 가격전망

#### ○ 건고추·마늘·양파·대파 가격 전월 대비 하락세 전망

- 건고추는 재고량이 많아 전년(8,200원)보다 낮고, 전월(7,380원) 대비 약세인 7,000원/600g 내외 전망
- 난지형 마늘은 2015년산 재고량이 적어 평년(3,950원)보다 높으나, 2016년산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전월(5,800원) 대비 약보합세인 5,200 ~ 5,700원/kg 전망
- 양파는 조생종양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730원)보다 낮으나, 전월 하순(800원) 및 평년(670원)과 비슷한 700원/kg 내외 전망
- 대파는 중순 이후 시설봄대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2,010원)과 전월(2,070원) 대비 약세인 1,700 ~ 2,000원/kg 전망

### □ 생산전망

#### ○ 2016년산 마늘·양파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16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4, 평년 대비 20% 감소 전망. 현재 육묘상태는 양호하며, 정식시기는 3~5일 정도 앞당겨질 전망
- 2016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0% 내외 증가 전망
- 2016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41 증가, 중만생종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8% 내외 증가 전망

\*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5. 09. 기준/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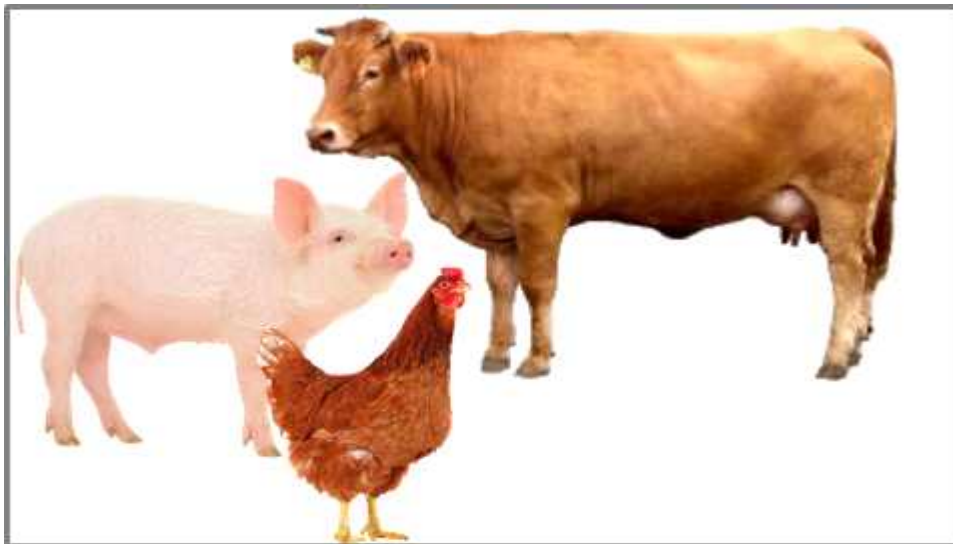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09)	1주일전 (05/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0,800	41,867	↓ 11.3	↓ 13.5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7,000	186,467	↑ 9.5	↓ 19.6
	고구마(밤)	10kg	30,200	30,400	29,800	31,050	29,310	↓ 2.7	↑ 3.0
	감자(수미)	20kg	27,800	28,400	32,600	48,100	30,500	↓ 42.2	↓ 8.9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	-	1,555	703	534	-	-
	양배추	10kg	12,100	12,000	9,725	7,050	6,057	↑ 71.6	↑ 99.8
	오이(다다기계통)	10kg	15,000	16,500	22,417	17,667	19,939	↓ 15.1	↓ 24.8
	애호박	8kg	11,200	12,000	16,100	11,500	13,033	↓ 2.6	↓ 14.1
	토마토	10kg	19,200	22,800	34,900	22,900	25,453	↓ 16.2	↓ 24.6
	당근	20kg	27,800	27,400	26,800	23,500	30,227	↑ 18.3	↓ 8.0
	건고추(화건)	60kg	720,000	720,000	756,000	820,000	833,467	↓ 12.2	↓ 13.6
	풋고추	10kg	51,600	45,000	46,000	56,900	48,493	↓ 9.3	↑ 6.4
	마늘(깐마늘)	20kg	175,000	175,000	167,000	106,700	120,033	↑ 64.0	↑ 45.8
	양파	20kg	14,600	19,600	31,650	16,050	14,723	↓ 9.0	↓ 0.8
	대파	1kg	2,370	2,350	2,395	1,705	1,498	↑ 39.0	↑ 58.2
	파프리카	5kg	20,600	23,200	24,300	16,950	22,347	↑ 21.5	↓ 7.8
	멜론	8kg	24,800	25,000	27,950	28,750	39,528	↓ 13.7	↓ 37.3
	방울토마토	5kg	16,200	16,600	22,500	18,150	19,535	↓ 10.7	↓ 17.1
	수박	1개	17,200	17,000	16,950	17,150	17,677	↑ 0.3	↓ 2.7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7,000	37,000	37,000	43,867	52,782	↓ 15.7	↓ 29.9
	배(신고)	15kg	44,000	44,000	44,000	41,000	46,204	↑ 7.3	↓ 4.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09)	1주일전 (05/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5,000	529,000	529,000	532,000	567,889	↓ 1.3	↓ 7.6
	느타리버섯	2kg	13,600	13,600	13,300	12,600	11,360	↑ 7.9	↑ 19.7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8,500	8,600	8,520	↓ 4.7	↓ 3.8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502	7,329	7,981	6,405	5,898	↑ 17.1	↑ 27.2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34	1,867	1,920	2,072	1,883	↓ 11.5	↓ 2.6
	닭고기	1kg	5,132	5,416	5,550	5,393	5,753	↓ 4.8	↓ 10.8
	계란(특란)	30개	5,330	5,097	5,150	5,937	5,882	↓ 10.2	↓ 9.4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7	0.0	↑ 6.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다음 주 제공합니다.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나주시, ‘나주 왕곡참외’ 특화 생산단지 육성한다

－ 시범사업비 3억원 지원하고 기술지원단 운영과 공선출하 강화 －

- 나주시가 마한농협, 생산농가와 손잡고 고품질의 왕곡참외 생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도비로 시범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왕곡참외 특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나섰다.
- 고품질 왕곡참외 생산단지조성을 위해 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연계, 연구와 지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현장 컨설팅, 마한농협을 통한 공선출하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현대화된 시설하우스 신규설치로 재배면적도 확대할 방침이다.
- 특히 시는 합리적인 비료주기와 유기물 투입 등 토양관리로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빛과 온도·수분·습도를 적절히 조절해 고품질 참외를 생산할 계획이다.
- 여기에 농약 안전사용, 안전착과 및 적기수확 된 참외를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해 최고품질의 참외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5월 3일 공선출하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마한농협과 나주왕곡참외 공선회가 빛가람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이 있는 빛가람동 직판장과 나주시일원에서 월 1회 이상 참외 직판장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 직판행사에서는 시식코너를 설치해 소비자가 직접 맛을 보고 구입토록 하며, 공동선별로 품질이 높은 왕곡참외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산지에서 재배 붐을 조성키로 했다.
- 지난해 마한농협은 19농가를 대상으로 참외공선회를 운영하여 2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출하물량은 인터넷 판매와 전화주문 직거래로 대량 소진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김상식 나주왕곡참외공선회장은 “왕곡참외는 7~8단계로 공동선별한 뒤 당도 13(Brix) 이상만 출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오는 10일에는 고품질 참외생산 기술습득을 위해 공선회 농가들과 함께 참외 주산지인 경북 성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계획”임을 밝혔다.
- 이종권 나주시 배기술지원과장은 “참외 재배면적이 2008년에는 23ha까지 늘었지만 육성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재배면적이 7.8ha에 그치고, 재배농가가 줄어 규모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참외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지원해 신규농가가 참여토록 하는 등 생산기반 확대해 참여농가와 재배면적을 50ha까지 늘려 광주·전남의 참외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나주시

## ■ 광양시, 농업진흥지역 240ha 변경·해제 추진

-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광양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2,086ha 중 240ha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정비하는 농업진흥지역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광양시는 47.5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192.6ha를 해제할 예정이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광양시는 인근 순천 6.8, 여수 4.3, 구례 4.5% 보다 높은 9.3%로 많은 면적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남도는 3.8, 전국 5.0%이다.
- 그동안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보완·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4년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한 내용 및 필지조서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5.2.~5.16.까지 열람할 수 있고, 농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열람 기간 내에 광양시 농업지원과 농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변경·해제는 오는 6월 말경 전라남도지사의 고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나종호 농업지원과장은 주민제출 의견은 반드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 유형에 적합해야만 추가 변경·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무분별한 의견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 곡성군, ‘스마트팜’ 경쟁력 강화

- 농식품 ICT 확산사업 예비신청 5농가 컨설팅 실시 -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농가들의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관내 시설원예·과수 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복합 사업 예비신청자 딸기·블루베리·포도·파파야 등 5농가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4.29. ~ 5.2.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컨설팅은 ICT 전문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 농가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여기에는 온도·습도 등 내·외부 환경센서와 적외선 카메라 등 영상장비, 각 시설별 제어 통합제어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생육정보 분석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ICT 장비를 활용해 농작물 재배하면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도 20~3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군에서도 이번 컨설팅 농가의 ICT 융복합 사업 성공을 통해 지역 내 시설농가의 스마트팜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 농가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내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시설원예 분야 뿐만 아니라 축산분야 및 노지과수분야에도 ICT와 접목한 스마트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 강진군, 벼 무논점과 2배 확대로 힘찬 출발

- 선도적 벼 직파 농법 도입, 올해 700ha 확대 추진 -

- 지난 3일, 벼 재배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무논점과 농법 연시회를 개최하고 풍년농사의 시작을 알렸다.
- 벼 무논점과 축조시비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강진읍 화전마을들녘에는 무논점과 사업 단지대표와 농가 180명이 참여했다.
- 이날 연시회는 군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벼 무논점과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벼 직파 파종기를 맞아 벼 직파 기술의 핵심기술인 파종 방법 시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정립한 농촌진흥청 한희석 박사를 초청해 2차 재배기술 전문기술교육을 갖고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할 재배농법과 이론기술을 공유했다.
- 강진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벼 무논점과축조시비 지원사업을 시도해 20개단지 365ha에 벼 직파를 추진, 2억 4천만원의 생산비절감 성과를 거뒀다.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700ha에 벼 무논점과를 추진한다.
- 벼 무논점과 기술 도입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직파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우려가 해소돼 직파 기술 정착과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 교육에 참여한 강진읍 오삼순 이장은 “무논점과 농법은 매우 성공적인 농업시책이다. 강진군은 앞서가는 행정으로 타 시군보다 무논점과를 빨리 도입했다.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농사비용이 덜 들어 좋고 모를 키우지 않고 모내기도 하지 않아 노동력 절감효과가 커 여성농업인들이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 강진원 군수는 “올해는 농림축수산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5억원이 증가된 84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정을 펼치고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 혁신농법인 벼 무논점과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벼무논점과연사회, 새벽영농기술지원, 현장컨설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강진 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벼 무논점과는 저비용으로 편리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농법으로 기존에 싹을 틔운 볍씨로 모를 키워서 못자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하는 육묘와 기계모내기작업을 생략, 싹틔운 볍씨를 논에 직접 뿌리는 동시에 비료를 볍씨 주변에 뿌려주는 농법이다. 모키우기부터 모내기까지의 노동력이 기계모내기 대비 35.3% 절감되며 농사비용은 22.8%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출처 : 강진군

## ■ 신안군, 「꾸지뽕」 정지전정 현장교육 실시 ....

- 현지 맞춤 교육으로 주민들 호응 높아 -

- 신안군은 지난 4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통상실시권을 확보한 꾸지뽕 신품종 「대품」 재배기술 및 전정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꾸지뽕 1~5년생까지의 재배관리 요령 및 수형관리 방법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야성박사(농업연구사)가 강의하고
- 농가 포장에서 4년생 꾸지뽕 전정을 재배농가 60여명이 직접 실습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었다.
- 꾸지뽕은 속성수로써 잎과, 열매, 뿌리, 줄기에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플라보노이드, 루틴, 모린 등의 성분이 있어 동의보감에 항암효과 및 혈당강하, 기관지 천식, 부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에 좋은 것으로 수록되어 있어 버릴 것 없는 기능성 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을원)은 지역특화작목인 꾸지뽕은 식재거리 및 열매 수확이 용이한 수형을 잡아 과원을 조성해야 농가들의 일손을 덜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최근 FTA 등 영향으로 불안정한 마늘, 양파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소득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지역특화작목 및 6차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신안군

##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보성군, 농·특산물 미국수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성군 - gy sunshine inc - (주)씨엘로홀딩스 미국 수출길 열다 -

- 지난 5일 제42회 보성다향대축제장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세미나실에서 보성군(군수 이용부)-gy sunshine inc(대표 배석준)-(주)씨엘로홀딩스(대표 진유정)는 보성군 농·특산물 가공,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성군 읍어친환경고추작목반에서는 친환경 고추를 재배, 생산하여 1차 가공하고, (주)씨엘로홀딩스에서는 고춧가루를 구매하여 저염 만능 양념인 ‘쉽게 만드는 김치’ 소스 완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장을 개척하며, gy sunshine inc에서는 ‘쉽게 만드는 김치’ 소스를 수입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진유정 대표는 “보성 농업인이 정성 들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다양한 양념류를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석준 대표는 “올해 전라남도 농수산물식품 미국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쉽게 만드는 김치’ 소스 20만\$(2억 3천여만원)을 수입하겠다”며 “보성녹차를 비롯한 보성의 우수 농·특산물이 미국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부 군수는 “보성의 우수 농·특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여 6차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등 생산자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출처 : 보성군

## ■ 전남서 가공한 한우고기, 홍콩서 첫 수출

- 3일 녹색한우 가공장서 기념행사 -

- 전남에서 직접 가공한 한우고기가 3일 첫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 이날 나주 소재 녹색한우 유통센터에서 한우고기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이번 첫 수출량은 한우 7마리의 부분육 가운데 등심·안심·채끝 등 고급육 부위 318kg이다.
- 그동안 전남에서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남산 한우를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해 타 지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해 왔으나 지난달 12일 홍콩 정부로부터 녹색한우 가공장이 수출작업장으로 등록돼 생산에서 가공까지 수출을 위한 모든 과정이 전남에서 이뤄지게 됐다.
- 한국·홍콩 정부 간 한국산 쇠고기 검역위생 협상이 지난해 11월 체결되고, 전남산 한우가 지난 12월부터 수출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노력한 결과 홍콩 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 등록을 받아 직접 수출에 나서게 된 것이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산 한우고기 수출은 축산농가 모두 한 뜻으로 구제역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전남산 한우고기가 품질을 제대로 인정받아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도록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홍콩 계란수출 정상궤도에..

- 충북산 계란에 대해서도 홍콩으로 수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6. 4. 17.에 영남산 계란을 홍콩으로 수출한데 이어 충북산 계란에 대해서도 '16. 5. 6.(출항일)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6. 4. 17.에 영남산 계란 수출을 14톤(24만개) 수출하였고 AI 청정지역인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계란 8톤(15만개)을 홍콩으로 수출한다.
- 이번에 수출된 계란은 홍콩의 계란 도매시장인 청샤완홀세일마켓을 통해 5월 중순경에 판매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출로 국내산 계란 수출이 정상화되는 등 안정적으로 홍콩으로 계란을 수출되는 등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최근 계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양계농가의 소득증대 등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출작업장 추가 지정 등 AI 비발생지역에서 계란을 수출토록 독려하고, 홍콩 계란수출업체가 계란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농산물꾸러미 활성화를 위한 요인별 중요도 및 상품개발 방향

####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 농산물꾸러미 상품화 관련 설문내용 및 개발방향

구분	설문 결과		상품개발 방향
상품개발 시 고려요인	◦ 맛별이 대상>가족수>마을 특성	⇒	◦ 맛별이 가구가 선호하는 간편 조리식과 반찬류 및 가공식품 상품 개발 ◦ 향후 1~2인 가족세대를 고려한 꾸러미 개발
꾸러미 품목수	◦ 5~8품목>9~12>5품목미만	⇒	◦ 기본적으로 5~8품목 중심으로 꾸러미 구성
꾸러미에 꼭 포함 할 품목	◦ 1순위 : 제철채소>유정란>두부 ◦ 2순위 : 유정란>제철채소>제철과일	⇒	◦ 꾸러미의 주 품목을 신선식품, 제철채소와과일 중심으로 구성
성공가능 꾸러미	◦ 친환경채소>친환경과일>계절별미>마을반찬>밀반찬	⇒	◦ 친환경 제철채소+과수 중심에 계절별미와 반찬류를 조합한 품목 개발
소비자를 위한 중요 고려사항	◦ 제철채소 신선도 유지>안전안심시스템유지>친환경 인증>연중공급	⇒	◦ 친환경+안전·안심의 소비자 신뢰확보 상품 개발

####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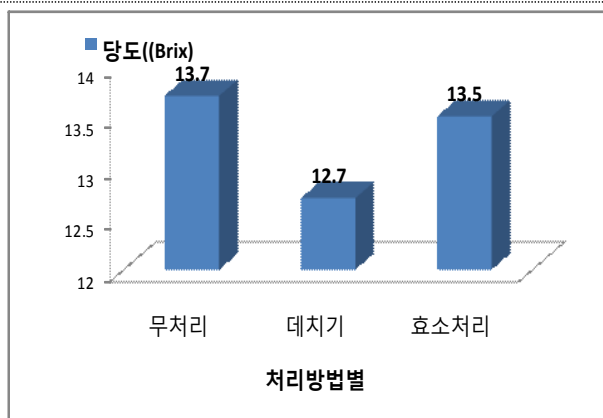
○ 농산물꾸러미 농가 및 사업체의 성공적인 상품개발과 활성화 정보 제공으로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손장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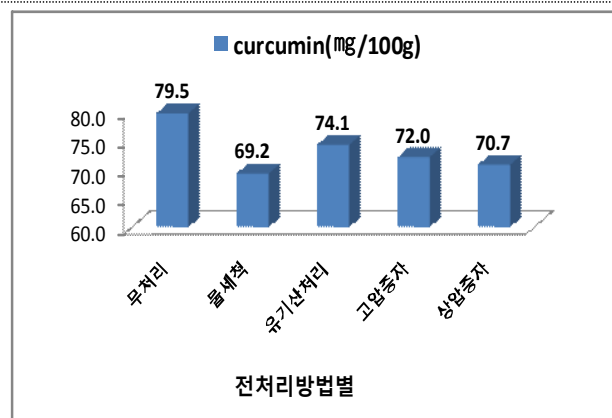
## ■ 비파열매와 울금 발효를 위한 원료의 전처리방법

###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비파열매 원료를 100℃ 끓는 물에 1분간 데치기하면 단맛이 감소하고 유기산함량과 항산화활성은 가장 높았음
- 울금 원료를 121℃에서 15분간 고압으로 찌면 유기산 및 커큐민 함량, 항균활성 및 살균처리 효과가 높았음
- 울금 원료의 당화력을 높이기 위해 정제효소를 시료량의 1% 첨가하여 55℃에서 3시간 당화시키는 방법이 총당, 환원당이 높았음



비파 전처리별 당도 비교



울금 전처리별 curcumin함량

### □ 개발기술 파급효과

- 비파 단맛조절 및 울금 살균처리 등 효과적인 원료 전처리 가능
- 전남 특산물 비파·울금의 발효기술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강정화

## ■ 남부지역 조 기계파종에 적합한 품종 및 파종시기

###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조의 기계재배에 적합한 품종 및 파종시기 : 삼다찰, 6월 중순

- 조 기계파종에 적합한 재배법

파종방법	두둑거리	시비량(kg/10a) (N-P <sub>2</sub> O <sub>5</sub> -K <sub>2</sub> O-퇴비)	비고
기계점파	120×30cm (휴폭90×이랑폭30cm)	9-7-8-1,000	휴폭 90cm, 이랑폭 30cm로 휴립 후 조건 60cm, 주간 10cm로 2줄 점파

- 품종별 수량구성 요소 및 수량(2014-2015년)      파종일 : 6월 15일

품종	이삭중(g)			이삭당 종실중(g)			수량(kg/10a)			지수
	'14	'15	평균	'14	'15	평균	'14	'15	평균	
삼다찰	27	28	27.5	11.1	11.3	11.2	371a	379a	375a	100
황금메조	23	24	23.5	11.0	10.9	10.9	368a	375a	372a	99
경관1호	18	24	21.0	9.9	10.2	10.1	330a	341a	336a	89

### □ 개발기술 파급효과

○ 파종시기 6월 중순에 삼다찰의 375kg/10a에 비해 황금메조 99%>경관1호 89%로 삼다찰이 안정적인

○ 잡곡류 안정생산 및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율 향상 : ('10)26.9 → ('15) 30.4%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용순

## ■ 여주 과잉출하기 회피 남부지역 1년 2기작 작형개발

###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과잉출하기를 회피하는 1년 2기작재배 작형개발

- 기존관행 : 1기작 봄재배(4월 하순 ~ 9월 하순)

- 개발작형 : 1기작 봄재배(3월 하순 ~ 7월 하순) + 2기작 가을재배(8월 상순 ~ 11월 하순)



### □ 기술개발 활용 및 보급계획

○ 남부지역에서 여주 1년 2기작 재배농가에 영농활용 기술로 보급

○ 2016년도 여주 재배기술 매뉴얼 자료 활용 및 현장실증 연구 추진

### □ 개발기술 파급효과

○ 판로의 안전성 확보 : 5월 하순 ~ 7월 하순, 9월 중순 ~ 11월 하순 생산

○ 생산성 향상(10a) : 1기작(8,385kg) 대비 2기작 총수량 46% 증수

○ 2기작 재배작형 소득증가액(10a) : 5,622천원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김성준

## ■ 전남 쌀 품질 향상 위해 최고품질벼 품종 재배해야

- 전남농업기술원, 2013년부터 3년간 재배 시험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쌀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최고품질벼 품종을 3년간 시험 재배한 결과, 우리 도에 알맞은 벼 품종으로 1모작에서 영호진미와 현품, 2모작에서는 현품을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 중만생종인 영호진미는 이삭이 패는 시기가 늦은 품종으로 벼가 익어가는 시기의 기상조건이 우리 지역과 알맞아 쌀의 완전미율이 높으며 단백질함량이 낮아 밥맛이 좋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일미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쌀 품질이 우수하다.
- 또한, 현품 역시 수량성이 높고 재배안정성이 뛰어나 전남지역 주요 수매품종인 새누리과 황금누리 품종 등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전남지역 벼 보급 품종은 새누리·황금누리·새일미·동진찰·신동진·일미·미품·운광 등 주로 재배안정성과 수량성이 높은 품종 위주였으나 최근 쌀 재고량이 높아지면서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최고품질 벼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 아울러 그동안 전남 우수 브랜드쌀 대표품종 중 하나인 호평은 금년부터 보급종이 중단되어 품질이 우수한 품종으로의 대체가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9년에 육성된 영호진미는 호평과 일미에 비해 출수가 6일 정도 늦은 단점이 있으나 쌀수량이 544kg/10a이며 밥맛이 매우 좋은 품종으로 전남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1모작 지역에 적합하다.

- 또한 우리 도 지역별 주요 수매품종이며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새누리와 황금누리는 수량성이 높으나 품질은 다른 보급종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현품은 이들 품종과 마찬가지로 재배 안정성이 우수하며 1,2모작 재배에서 남평벼 대비 약 6~8% 증수되어 새누리와 황금누리보다 높고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미질도 우수하다. 다만 질소비료 과다 시 미질저하가 우려되고 만식재배 시 출수가 늦어 수량감소가 우려되므로 질소과다시비 및 만식재배를 지양해야 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안규남 연구사는 “전남지역의 최고품질벼 재배 확대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품종을 종자보급종에 포함시켜 최대한 빨리 보급할 계획이며 우리 도 대표 품종으로 자리매김과 더불어 브랜드쌀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2016년산 벼·맥류·두류 등 우량종자 생산에 박차

- 벼 9품종, 맥류 6품종, 밭작물 8곡종 등 총 83.9ha 재배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6년산 벼·맥류·두류 등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재배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는 등 우량종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은 올해 나주시 반남면 등 재배농지 83.9ha에 벼 9개 품종 40.5ha, 맥류 6개 품종 31.2ha, 밭작물 8개 곡종 12.2ha를 재배하여 벼 199, 맥류 87, 콩 등 밭작물 14톤 등 총 300톤의 종자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 ■ 참다래 풍년 농사는 인공수분에서부터

- 참다래 재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꽃가루 채취와 인공수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참다래 재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꽃가루 채취와 인공수분 기술을 개발하여 참다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참다래는 바람에 의한 수분은 거의 되지 않으므로 인공수분을 반드시 해주어야 안정적인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참다래 재배면적은 510ha에 달하며, 전국 생산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 작물이다. 참다래는 암수딴그루로써 수꽃품종은 암꽃품종에 비해 개화의 개시가 2~3일 빠르고 종료는 2~3일 늦어 개화기간이 긴 편이다. 수분에 알맞은 꽃가루는 개화 후 2~3일 이내의 것이 꽃가루 활력이 좋다.
- 인공수분에 필요한 수꽃은 개화직전 팝콘처럼 부풀었을 때 채취하면 활력이 좋은 꽃가루를 많이 수집할 수 있다. 꽃의 채취는 아침 일찍 개화 직전에 큰 꽃봉오리를 골라서 채취하는 것이 좋으며 꽃가루가 나온 꽃밥은 바람이 없는 장소에서 100~150매쉬의 채를 이용하여 꽃가루를 분리 채집한다.
- 또한 참다래 꽃가루는 실온에서는 5일 정도 발아능력이 있으나 저온·건조 상태 하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다.
- 참다래는 800~1,400개(골드키위 600~800개)의 많은 종자를 갖는데 과일의 크기는 종자가 많을수록 크며, 종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많은 수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어서 씨방에 들어가야 상품성이 좋은 과일이 착과된다.

- 따라서 품질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분수를 충분히 혼식해야 하고 수분수가 부족한 과원에서는 수분수를 높이접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해야한다.
- 특히 벌과 방화곤충의 출입이 어려운 비가림 하우스 재배농가, 파풍막 시설에 있는 농가에서는 인공수분은 더욱 필수적이다.
- 참다래 인공수분 시 소요되는 꽃가루는 증량제의 혼합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0평당 10~20g 정도이다. 인공수분에 사용할 꽃가루는 발아율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인공수분작업은 암꽃의 개화 당일을 포함하여 4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 참다래 인공수분 방법은 가루수분방법과 물수분 방법이 있다. 가루수분방법은 꽃가루 소요량이 적고 인공수분 효과는 좋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물수분은 증류수, 현탁액, 교반기, 색소, 분사기 등의 장비가 필요하지만 노동력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연구사는 참다래 인공수분을 위한 물수분용 현탁액 제조 특허를 지난 3월 16일에 (주)한국 참다래 연합회로 기술이전 하였다고 말하며 처음 수분을 실시농가에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고품질 홍차생산을 위한 농가 기술지원 개시

- 농민 기쁨·농가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홍차 제조기술 지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차(茶)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녹차 위주에서 벗어나 고품질 홍차 제조법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차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재 차농가들은 찻잎 수확과 1년 중 가장 맛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매우 분주한 시기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바쁜 시기에 차산업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연구, 개발한 홍차 제조 방법 기술을 직접 지원하여 다양한 농가 소득증대 방법을 찾고 있다.
- 보성 울포녹차 윤�팔한(76세) 사장은 “금년에 첫 수확한 찻잎으로 차산업연구소 장비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맛있는 홍차를 만들도록 배려해 주어 너무 기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차 종류를 판매하고 싶고, 더 나아가 명차 품평대회까지 출품하고 싶다”고 새로운 희망을 내 보였다.
- 국내 차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차산업이 예전 만 못한 시점에서 차 소비촉진을 위해 차산업연구소에서 녹차·홍차·혼합차 등 다양한 차 제품을 국내 차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개발하면 앞으로 희망은 있다고 본다.
- 차산업연구소 최정 연구사는 “차 농가들이 고품질 홍차 제품생산을 위해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제조방법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차연구소 내 제다기기를 이용한 홍차 제품 제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차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잡곡 농사의 시작! 우량종자 고르기

- 소금물가리기로 쪽정이 골라내고 약제 소독한 후 파종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잡곡 재배에서 우량종자 고르기가 한해 결실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올바른 종자 정선 방법과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 조·수수·기장과 같이 알이 작은 잡곡들은 종자를 선별하지 않고 그냥 파종하면 발아율이 낮아 어린모 출현율이 줄며, 이로써 잡곡의 생장과 발육이 좋지 않아 다시 파종하기도 한다.
- 잡곡의 우량종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소금물가리기를 실시해 쪽정이를 골라내야 한다.
- 조는 물 1ℓ에 소금 약 43g(비중 1.030), 수수는 소금 약 50g(비중 1.035), 기장은 소금 약 35g(비중 1.025)을 녹인 물에 잡곡 종자를 넣고 잘 저은 후 가라앉은 종자를 선별해 그늘에서 말린다.
- 그늘에서 말린 종자를 용기에 담고 베노밀 수화제를 넣은 후 약제가 종자에 충분히 묻도록 잘 섞어준 다음 파종한다.
- 소금물가리기로 선별한 종자를 파종하면 정선하지 않은 종자에 비해 조는 약 31, 기장은 14.3, 수수는 20.7%p의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강항원 생산기술개발과장은 “조·수수·기장과 같은 소립형 잡곡류는 영농 전에 반드시 우량종자를 선별해 파종해야 발아가 균일하면서 생육도 좋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8. 정책 동향

### ◆ 전남 귀농어·귀촌 유치 통합 상담창구 뒀다

- 5일 농업기술원서 종합지원센터 현판식...맞춤형 교육정보 제공 총력 -
- 전라남도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웰빙힐링 수요 확대 등으로 최근 급증하는 예비 귀농·귀어·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나주 소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 전라남도는 그동안 중앙과 시·군을 연계하고, 전 시군을 종합 안내할 상담창구가 없어 한 곳에서 귀농·귀촌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런 가운데 품목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온실포장 등 실습 기반을 완비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수요자 중심의 통합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귀촌 전담인력 3명, 귀어 상담인력 1명, 전문적으로 창업을 자문해줄 인력 1명, 총 5명으로 운영된다. 귀어 상담 전문인력을 센터에 둔 것은 전라남도가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어인 유치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앞으로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귀농·귀어·귀촌 교육과정을 센터에서 총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향우회기관기업 방문 설명회 개최 등 수도권 지역 유치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센터를 방문하는 예비 귀농·귀어·귀촌인에게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안내 역할도 하게 된다.
- 여기에 귀농·귀촌인이 정착 초기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택과 농지 구입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누리집에 게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정기적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인 간 교류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정기적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로 귀농·귀촌인의 어려움을 해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낙연 도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귀농어·귀촌인 유치부터 상담, 교육, 창업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종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시·군 사이의 통로 역할에 충실하면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전남도, 농가 순보험료의 80% 지원...31일까지 가입해야 -

- 전라남도가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벼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 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벼 보험 가입은 오는 31일까지 두 달여 동안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 전라남도는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ha(3천 평) 당 평균 순보험료는 약 36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7만 2천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 올해부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농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총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제외한 농가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 시 14만원(약 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이외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도 40에서 30%로 낮췄다. 또 농지원부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가입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 특히 전라남도는 유기농 확대와 유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과는 별도로 '유기농 종합보험'을 도입해 시행한다. 이는 벼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 전라남도는 5월 한 달 동안을 벼 보험 가입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가입 확대 전략회의’와 지속적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지리적 여건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농사의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벼 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벼 보험 가입 면적은 4만 8천여 ha로 전체 벼 재배면적(17만여ha)의 28.2% 규모였다. \* 출처 : 전라남도

### ◆ 전남도, 정부양곡 안정적 재고관리 총력

- 보관창고 추가 확보사료용 공급 등 통한 적정 재고 유지 추진 -
- 전라남도가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수준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에 따른 주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지역 정부관리양곡 재고율은 보관능력의 69% 수준이다. 재고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말 73%에 비해 낮아졌다.
- 전라남도는 재고관리대책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확보를 위해 농협, 개인창고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 보관계약을 추진, 약 5만 4천톤의 보관여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관 가능량은 약 25만톤이다.

- 또한 정부관리양곡의 재고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 월별 정기 가공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도내 보관중인 2012년산 정부관리양곡 총 5만 3천여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이는 전국 공급물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까지 가공이 이어질 경우 재고율을 낮추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 전라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재고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정부관리양곡의 보관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온창고 확충 및 창고 개보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장 격리곡 등 정부관리양곡 재고 증가요인이 있으나 현재 마련된 재고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올해 말 공공비축 매입에 대비한 안정적 재고율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9. 해외 농업정보

### ◆ 중국 마늘·양파 생산 동향 및 전망

#### □ 중국은 마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

- 마늘 재배면적은 전 세계의 60%, 생산량은 80% 내외
  - 중국 마늘 재배면적은 76만ha, 생산량은 1,800만톤 수준
  - 중국 마늘 재배면적은 자국 내 소비 증가와 주변국으로의 수출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 증가
-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40%, 전 세계 수출량의 80%를 차지
  - 중국 마늘 교역량은 150 ~ 200만톤 수준. 수출 수요 증가로 2000년대 중반 110 ~ 120만톤 수준에서 연평균 5% 증가
- 중국 마늘 주산지인 산둥성(금향·창산), 하남성(기현·중무), 강소성(파주) 등임

#### □ 중국 마늘 생산 및 가격 전망

- 중국의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이 2015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마늘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2016년산 중국 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8% 내외 증가 전망
- 마늘종 수확 및 입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저장마늘 출고량이 늘고, 조생종 햇마늘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5월 중국 마늘 산지가격과 한국 수출가격은 현 수준(4월 말 기준, 10.5위안/kg)보다 하락 전망

## □ 2016년 운남성 양파 생산 동향

- 운남성의 양파 정식시기는 9~10월이며, 수확시기는 2~4월임. 따라서 운남성은 중국 햇양파가 첫 출하되는 양파 주산지임
- 2016년 운남성 원모현의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농가 재배는 감소하였으나, 2015년산 감숙성 양파의 가격이 높아 산지유통인 재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운남성 양파의 경우 예년에는 4월 이전에 대부분 수확이 종료되었으나, 금년에는 출하시기가 지연되어 4월에도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 중국 양파 생산 및 가격 전망

-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산둥성 양파의 재배면적을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까지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9월에 수확되는 감숙성 양파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정식은 5월 상순에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조사됨
- 5월 산지가격은 4월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조생종 양파 출하지역이 강소성·하남성 등으로 확대되면서 출하량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따라서 국내 도매시장 출하가능가격도 4월(1,59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도매시장 5월 가격은 700원/kg 내외 수준으로 중국산 가격보다 낮은데다,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량도 많아 중국산 양파의 5월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5. 09.(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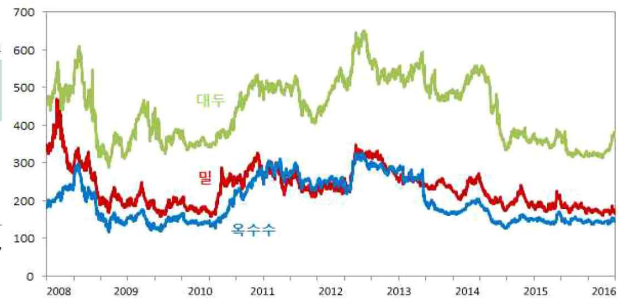
폭우로 피해입은 아르헨티나 대두의 품질 우려로 대두 선물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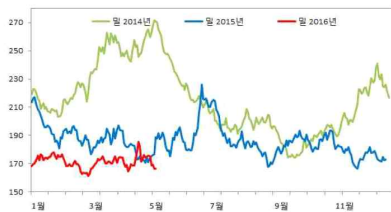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5.6)	전일대비	전월평균 ('16.4)	2015 평균
밀	166.52	-	173	186
옥수수	148.03	▲1.2%	147	148
대두	377.06	▲2.3%	354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5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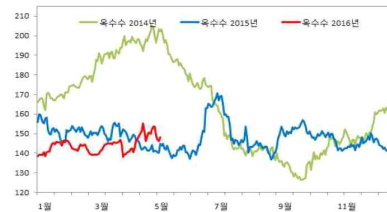


##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금주 가격 하락으로 인해 11월 중순 이후 가장 큰 주간 손실을 보았으며 금일 숯커버링세 유입으로 미미하게 이익을 남겼으나 가격은 보합세로 마감하였음. 풍부한 공급량과 미국산 밀의 수출수요 둔화는 금일 기술적 거래로 인한 이익을 제한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목요일 가격하락 이후 시장에 일부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였음. 금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미국 중서부의 파종 가속화로 인해 제한적이었음. 미 농무부는 민간수출업체가 옥수수 132,000톤을 이스라엘에 수출했으며, 2015/16 양곡연도 안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함.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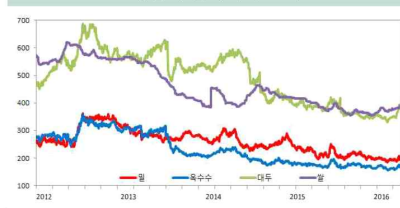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아르헨티나에서 수확되고 있는 대두의 품질 우려로 인해 이익을 얻어 상승 마감하였음. 아르헨티나는 폭우로 인해 대두 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때문에 미국산 대두의 수출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촉발되었음. 또한 목요일 대두 선물 가격 하락 이후 시장에 저가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면서 가격을 지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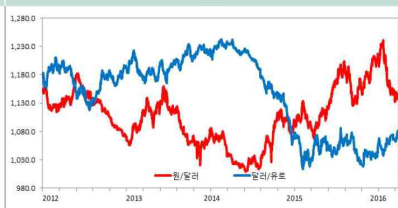
## 관련동향

- 미국산 대두 수출가격은 브라질의 수출 증가 및 중국의 수요 둔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
- 국제유가는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 차질 지속, 나이지리아 생산 차질, 미국 원유시추기 수 감소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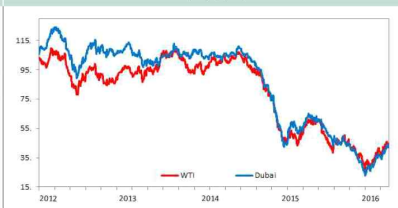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190	▼1.6%		원/달러	1,137.1	▼0.3%
	옥수수	167	▼0.6%		달러/유로	1.1503	▼0.2%
	대두	384	▼2.5%		WTI	44.66	▲0.8%
	쌀	394	-		Dubai	42.20	▼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6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5.5(수출가격), '16.5.4(환율), '16.5.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우리나라 공휴일(5.5 어린이날, 5.6 임시공휴일)로 5~6일 환율이 발표되지 않음.

##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농·수·축 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 전남도, 20일까지 시·군서 신규연장 희망업체 접수 -

- 전라남도는 오는 20일까지 2016년 상반기 농·수·축 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다.
-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 기존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 등이다.
-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전남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희망업체는 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334개 업체 1천 67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이 입점해 판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 신청품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위생사업소의 안전성검사를 통해 1차 검증을 받고,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 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라남도 통합 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인증 제품은 향후 3년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 상표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쇄 및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식품기업이 도지사 품질 인증을 통해 판매 촉진 및 소비자 신뢰를 얻도록 지역 제품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식품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련 문의는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 - 286 - 6454로 문의바람.

\* 출처 : 전라남도

## ◆ 가자! 행복스케치 농촌교육농장으로

- 살아있는 자연 교과서, 농촌교육농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치원생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가족단위 힐링, 치유개념의 여가활동이 확대되고,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촌관광도 단순 휴식 목적에서 농촌테마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도내 농촌교육농장은 농촌,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07년부터 57개소를 육성했다.
- 이중 20개소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품질인증까지 획득했다.
-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농촌교육농장으로는 여수시 송시마을체험장, 순천시 한솔, 나주시 명하공방, 광양시 백운요, 담양군 다화림, 보성군 싱싱농원, 우리원, 해남군 해남에다녀왔습니다, 무안군 파도목장, 함평군 만호방, 영광군 유레카목장 등이 있다.
- 농촌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이나 단체, 가족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061 - 330 - 2766)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주들의 단순 농업경영인의 위치를 탈피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농촌현장체험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6월,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사양성 과정을 운영 할 계획이다.
- 황수정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은 “많은 학생들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농촌교육농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하며 “도내 모든 농촌 교육농장에 대한 시설물과 식품위생 안전 상태를 일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농장주의 교육적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제각각이던 농기계 안전표지·조작표시 6월부터 하나로

- 농촌진흥청, 농기계 업체 디자인비 절감·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여 -
- 농기계 제조업체별로 제각각이던 농기계 안전표지와 조작표시가 앞으로 통일될 수 있을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안전표지와 조작표시 도안을 새롭게 표준화하는 한편, 관련 도안 일러스트를 제작해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제조업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농기계 안전표지 30종 및 조작표시 66종 도안을 새롭게 표준화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안해 4월 13일 심의를 거쳐 입법 예고됐으며, 국가표준으로 6월 초 고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표지나 조작표시는 국가표준규격을 준용해 제작·사용해야 한다.
- 그러나 그동안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통일되지 않은 제각각의 도안으로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를 제작해 농기계에 부착함으로써 농기계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 이번에 새롭게 표준화한 농기계 안전표지 도안은 기존 'KS B 7947' 도안 27종 가운데 2종은 삭제, 2종은 유지, 23종은 수정하는 한편 5종은 새롭게 만들어 총 30종의 도안을 표준화했다.

- 조작표시 도안은 기존 'KS B 7946'도안 65종 가운데 3종은 유지하고 9종은 삭제, 10종은 신설, 53종은 수정해 총 66종의 도안을 표준화했다.



- 이들 농기계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 도안은 기존의 복잡하고 조잡했던 그림을 좀 더 단순화하고, 농기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의 통일된 도안 사용을 위해 이번에 표준화한 96종의 도안을 포함해 5개 국가표준규격의 557종 도안 모두를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공했다.
-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저속차량 표시 등 부착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2015년에 경운기, 트랙터 등 2만 5천대에 부착했고, 2016년에도 3만대에 부착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유용 농업연구사는 “그동안 소규모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영세해 규격에 맞는 도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이번에 도안을 새롭게 표준화해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의 통일된 도안 사용은 물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84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